

# 舞 朝鮮 무용통신 号外

発行：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本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03-3817-0431

제 7 호 (루게 제 7 호)

주체 9 0 ( 2 0 0 1 ) 년 6 월 3 0 일 ( 토 )

## 재일동포를 폭넓게 묶어세우기 위한 민족

## 문학예술운동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오자!

지난 6월 9일 (토) 조선출판회관에서 문예동 제 15 차대회가 진행되었다.

문예동중앙 김정수위원장은 14 차대회이후에 거둔 아름답 성과와 경험을 자랑차게 총화하였으며 앞으로 16 차대회를 내다보고 새 세기의 지향과 우리 재일동포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문예활동을 벌려 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여기에 개괄적인 대회보고를 소개한다.

### △ 19 전대회의가 제기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

격변하는 정세와 내외환경, 재일동포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맞게 21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는 총련의 모든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새 세대들이 주역이 되어 광폭으로 민족적애국운동을 발전시켜나간다.

### △이 진로를 열기 위한 선결조건

총련의 사업방법을 바꾸며 조직을 광범한 동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조직체로 일신시키는것이다.

### △성과

- ① 광범한 동포들속에 조국애, 민족애를 불러 일으키는 창작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려온것이다.
- ② 군중문화운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조직주위에 묶어 세운것이다.
- ③ 조국통일과 조일친선에 이바지하는 문예활동을 적극 벌려 온것이다.
- ④ 자체조직을 튼튼히 꾸린것이다.

### △과업

- ① 재일동포사회에서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문화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하겠다.
- 동포들의 민족적감정과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명작품창작사업을 조직한다.

- 군중문화사업을 벌려 나갈수 있는 자료를 만들며 지도력량을 키운다.
- 새 세대 청년들의 민족문화사업과 민족교육체계속에서의 문화사업에 관심을 돌려 적극 이끌어 준다.
- 조국의 통신체계와 해외 류학생제도를 통하여 인재를 육성해나간다.
- ② 조국통일과 조일친선에 이바지하는 창작공연사업에서 전진을 이룩한다.
- 북남공동선언의 지지와 그 실현에로 불러 일으키는 작품을 창작하며 공연, 전시, 출판보급사업을 벌린다.
- 민족자주의 리념밑에 계열 바깥의 동포작가예술인들과 단합하며 문화사업을 벌린다.
- 남조선 작가예술인과의 교류와 련계를 깊여 나간다.
- 일본문화인을 비롯한 일본인민들과의 친선교류사업을 적극 조직한다.
- ③ 조직을 강화하고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 민족적자각과 애국심이 강한 새 세대 일군들이 역할을 놀수 있도록 조직의 면모를 바꾸어 나간다.
- 상임위원회와 부위원회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간다.
- 열성맹원과 애호가들이 늘 합심하여 문예사업을 벌려 나간다.

# 무용조곡 《세월과 더불어》 공연을

## 대 성황리에 끝낸 사랑을 안고...

- 문예동 니시도쿄지부 리선옥부부장이 한 토론 -

### 공연기획에 담겨진 뜻

민족교육의 마당에서 춤을 배우고 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겨 춤의 기량을 닦아온 무용부맹원들의 힘으로 반만년에 걸치는 조선무용의 전통을 무대우에 펼쳐 보자고 이 사업에 나선것은 3년전의 일입니다.

재일동포사회에서 날로 민족성이 흐려지고 저절로 민족문화마저 경시되는 속에서도 이역땅 일본에서 세상에 자랑 많은 우리 민족무용을 새 세대들이 대를 이어 빛내여가고싶다, 우리 공연을 통해 광범한 동포들에게 민족의 얼을 뜨겁게 심어주고싶다, 조국통일이 밝아오는 오늘 이 사업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한줄기 빛으로 되고싶다...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일본각지의 문예동무용부위원장들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교토 등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 공연사업에 떨쳐나섰습니다.

### 조국의 사랑을 느끼며

3개소의 관람석 6천석을 과연 매울수 있을가, 그 방대한 재정예산을 다 모을수 있을가, 전임일군없이 조직사업을 원만히 짚수 있을가하고 생각하니 우리가 기획한 공연이 <모험> 이 아닐가 하는 나약성과 소극성이 머리를 쳐드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에 진행된 여름강습으로 일본에 오신 조국강사선생님의 모습이며 해마다 여름과 겨울의 조국강습에서 배워주시는 조국의 무용선생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니 세월과 더불어 없어져가는것은 많아도 민족문화만큼은 지켜야 한다, 새 세기 새 세대들속에서도 민족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 사업에 떨쳐나선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다시 마음다지며 니시도쿄무용부 부부장으로서는 출연자들을 다시 불러 일으켰으며 연습일정, 표할당, 광고모집 등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공연을 위해 조국의 안무가, 작곡가, 무대미술가들이 음악과 무용의 창작사업을 맡아주신다는것 특히는 소도구와 의상까지 만들어 보내주신것을 보니 이루다 형언할수 없는 큰 힘을 얻고 이 사업을 힘차게 내밀고 나갔습니다.

### 12월 24일 오사카공연

낮과 밤의 공연은 감동의 도가니로 들끓었으며 박수도 오래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큰 박수갈채속에서 춤추는 우리 맹원들을 보면서 (지금 문예동무용부는 새 역사를 수놓아 가고 있다, 어렵다던 일도 성공시켰다, 감격하는 동포들의 모습-이보다 중요하고 보람찬 활동이 또 어디에 있을까)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웨쳐 보았습니다.

### 공연의 반향을 통해서

조선신보는 물론 일본의 3대신문, 지방텔레비존, KN텔레비에서도 우리 소식을 소개하였습니다. 공연 다음날 경제형편이 어려운 때이니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라고 하면서도 협력해준 한 동포가 격려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 공연을 도호꾸나 혹가이도, 조국에서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환경이 복잡하다고 해도 민족성을 고수하고 통일을 위한 참신한 문화사업을 벌린다면 만사람의 지지를 얻을수 있다는것,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따라 사업할 때 광범한 동포를 묶어세울수 있다는것을 교훈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선무용을 수많은 동포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새 세기에도 우리 민족문화를 꽃피워나가 총련의 애국사업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요약과 제목보충은 편집부에서 함)

